

# 경호업무수행자의 성격특성과 직무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대처효과의 관계

김 종 탁\*

##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고찰
II. 이론적 고찰	V. 결론
III. 연구방법	

## I. 서론

사회이며 조직의 목표는 그 구성주체인 인간에 의해 달성된다. 따라서 인간의 효율적 관리 없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거대화된 조직사회에서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조직의 목표만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성과 개성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권상철, 1991). 특히 고도의 경제발전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반면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개인의 질병은 물론 스트레스라는 부정적 반응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현대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일단 병리적 처방만 제시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직장 내 조직환경요인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정신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82).

그러나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오히려 성장의 촉진이 되기도 하며(Jounard, 1975), 성격적 특성이 대처효과와 대처행동, 적응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Moos, 1984).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생체리듬의 부조화와 불만족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것은 곧 자신과 외부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하는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인데, Jounard(1975)는 인간의 성장

\* 주성대학 경호비서학과 교수

본 연구는 주성대학 2002년도 교내지원 연구과제의 결과물입니다.

은 이러한 갈등 및 좌절의 경험과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직장생활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및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Moos등(1984, 1985)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는 대처행동에 따라 확실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는 Lazarus등(1994)과 Coyne, Aldwin & Lazarus(1981), Folkman & Lazarus(1980, 1985, 1986), Averill & Lazarus(1972) 등에 의하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들은 생활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요인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대처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Holahan(1986)과 Eysenck(1983)등은 성격특성이 스트레스 대처효과, 즉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동일한 스트레스원에 직면하더라도 성격특성에 따라 개인차가 있어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격특성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아울러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효과 즉,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성격특성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각 성격특성의 소유자들이 어떤 양식으로 스트레스원에 대처하는가를 밝혀봄으로써 경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원만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 II. 이론적 고찰

### 1. 성격특성의 개념

성격의 특성에 대한 개념의 정리는 학자들마다 정의를 달리하고 있지만 Chartcot와 Janer 에 의해서 시작되고 Freud와 Jung, 그리고 McDougall에 의해서 발전된 임상적 관찰의 전통은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성격이론의 틀을 결정짓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Personality”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함축되어 쓰이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기술 또는 능숙함”과 또 “개인이 원래 지니고 있는 남

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지고, 뚜렷한 인상"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보통 성격이 좋다거나 나쁘다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신동성, 1994). 이것은 성격을 연구하는 이론적 방법론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뜻한다(Hall & Lindzey, 1990). Hilgard & Atkinson(1993)에 의하면 성격이론은 그 접근방법에 따라 크게 특성적, 사회학습적, 정신분석적, 현상학적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성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요인이론에 의하면 성격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어떤 행동을 위한 경향성이나 성향과 같은 개념이다. Cattell(1994)은 자기의 성격요인을 설명하면서 16개의 각각 다른 요인과 독립적인 근본특성을 연구결과에서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에서 Eysenck(1983)은 신경증상적 안정과 내·외향적 차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타인과 구분되는 개체의 인식, 감정, 의지 및 신체적 모든 특징의 통합적인 체제"라고 정의하여 개인의 독특성과 내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또 Allport(1994)는 성격을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행동을 결정해 주는 정신적, 신체적, 체제의 역동적 조직"이라고 정의하여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적응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Cattell(1950)은 행동의 예언 가능성과 일관성을 강조하여 "성격이란 한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언하게 해주는 것이라 하여  $R=f(s \times p)$ 로서  $R$ =반응,  $S$ =환경,  $P$ =성격이란 공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자들 간에 성격특성을 내성적-개방적, 비지적-지적, 복종적-지배적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Cattell, 1994), 안정성-불안정성, 내향성-외향성의 요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Eysenck, 1983). 그 외에도 성격특성을 분류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 2.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직무스트레스(job stress)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직무스트레스는 환경적 자극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환경적 자극과 개인의 반응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Margolis(1974)와 Caplan(1975)은 직무스트레스를 환경적 자극으로 파악하여 "작업자의 특성과 상호작용 하여 작업자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 항상성을 파괴하는 작업조건" 또는 "개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든 직무환경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Schular(1980)와 Parker(1983)는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의 반응개념으로 파악하여 "육체적

반응(두통, 복통, 불면, 신경쇠약, 고혈압, 위궤양, 심장병)과 정신적 반응(피곤함, 압박감, 긴장감)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 Ivancevich & Matteson(1990)은 조직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Schuler(1980)는 개인차원과 직무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개념화하면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이 정상적 기능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심리적, 신체적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저해하는 직무관련 요소가 작업자와 상호작용 하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능력이나 그가 가진 자원과 환경요구의 부적합, 개인의 욕구와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직무환경과의 부적합으로 정의하여 “직무스트레스란 개인과 직무환경과의 부적합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 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대처효과의 관계성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인자로 평가되는 성격특성은 사회성과 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Dunbar(1959)는 관상성 심장질환과 관계된 성격의 연구에서 명명한 A성격 유형은 공격적, 야망적, 경쟁적, 권력추구적, 불인내적, 시간강박적 성격의 특성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 후 Friedman & Rosenman(1990)이 심장병 환자들에게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행동유형을 발견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B성격 유형은 A유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태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유형에 속한다. A유형의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능력이 좌절될 때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으며(Carver & Glass, 1976), 또 환경에 대한 통제를 B유형 사람들과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이다(Rosenman, 1983). Pittner & Houston(1980)은 A유형 피험자가 과제수행에서 실패하여 상당한 쇼크를 받거나 남들보다 못한 피드백을 받으면 B유형의 피험자보다 훨씬 억압과 부정의 대처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A유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임을 알 수 있고, 또 이들은 과제에 임하는 자세에서 적극적으로거나 지나치게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제수행의 실패와 낮은 점수에 대해서 B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억압적, 부정적 대처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성이란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적 무리 없이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성이 낮은 집단은 사교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사람을 만나는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김기석, 1973). 특히 직업을 가진 직업군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Berton, 1972; Elkin & Handel, 1978; Ishwarn, 1979; Richer, 1994; Glynn, 1981; Hobart, 1981).

한편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 및 조직망은 스트레스적인 사건의 정적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보고(Eaton, 1996; Gore, 1984; Linn & Simen, 1996)되어 있고, Pearlin(1989)은 개인이 소속한 사회적 조직망의 크기보다는 개인의 관여도와 친밀도가 스트레스 대처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Jones(1990)와 Bourne & Rose(1986)는 낮은 사회성을 가진 자는 반대의 경우보다 자기신뢰와 개성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며, 위협상황에 대처하는 힘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높은 사회성의 소유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충격을 덜 받게 하며,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켜 주는데 비해, 비사회성의 소유자들은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게 하며, 현실세계에 대해 상당히 방어적인 대처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련성에 있어 안정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고, 감정이 안정되어 있으며, 비교적 근심이 없고 신경질적이 아닌 성격특성을 일컫는 것에 반하여 이에 반대되는 성격특성으로는 과도한 정신적 불안, 심리적 긴장, 신경과민 등의 특성을 들 수 있다(김기석, 1973).

Sarason(1986)과 Taylor(1967), Mewett(1987)등은 안정성은 학업성취와 상관이 있는 반면 불안은 학업성취와 상관이 없으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사람은 환경의 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ysenck(1983)과 Hovanitz(1992)는 불안은 신경증과 깊은 관계가 있고 정신신경증에 영향을 주는 대처행동을 연구한 결과 회피 및 부인적 행동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Holahan & Moos(1986)와 Frederick & Ryan(1993)은 안정된 성격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이나 신체적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도피기제를 덜 사용한다고 보고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낙관적 행동은 스트레스원에 의한 충격을 덜 받게 하며 심리적 긴장도 덜 느끼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견해에서 안정성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격을 더 많이 받으며, 도피적, 부정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또한 일상 및 사회의 적응 면에서도 많은 곤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C, K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호경비업 종사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연구대상의 표본은 유층집락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의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각 도에서 100명씩 총 200명의 표본을 추출한 후 보조조사원에 의해 회수된 설문지를 자료화하여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된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85명만을 무작위 표집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의 특성은 <표3-1>과 같다.

<표3-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빈 도(명)	비 율(%)
성별	남자	162	87.6
	여자	23	12.4
연령	18-26	73	39.3
	27-30	66	35.9
	31-35	39	21.0
	35이상	7	3.8
학력	고졸이하	51	27.4
	대졸이상	134	72.6
지위	일반사원	142	76.9
	대리 및 계장	32	17.2
	과장이상	11	5.8

#### 2. 측정도구

이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측정도구는 4개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격특성 검사는 사회성, 안정성, A유형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석(1973)의 "일반성격 검사"와 Thurstone(1949)의 "Thurstone 활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요 스트레스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3개월간의 생활사건 조사는 지난 3개월간 있었던 일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개인에게 직접 주관적으로 기술하게 한 이유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건이 개인마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검사는 Lazarus & Folkman(1980)이 제작 사용한 것으로 김창대(1986), 이장호, 김정희(1986), 김정희(1987)등이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다. 이 척도는 크게 문제지향적 대처양식과 정서지향적 대처양식으로 분류하여 각각 2개 및 6개의 하위군집을 포함하여 내용은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레스 대처효과 검사는 Hamburg & Adams(1967)가 제작한 것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자아존중감이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검사절차

검사절차는 연구자와 조사원이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지의 목적과 기입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준 후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ering method)의 방법을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조사는 사전에 설문지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보조 조사원과 연구자가 해당 조사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고 실시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 4. 자료처리

이상의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완성된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이중기입이나 무기입 자료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된 유효 표본만을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검색이 끝난 자료는 Window용 SPSS/PC 7.5 Version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t검증과 상관분석 등으로 검증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이 연구는 성격특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대처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처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결과 및 고찰

1) 경호업무 수행자의 주요 스트레스원

현재 경호업무 수행자들이 주로 어떤 일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그들이 기술한 생활사건을 내용별로 구분한 뒤 빈도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4-1>과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경호업무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의 가장 주된 원인에 있어 생활사건의 순서가 경제적 문제, 직장 내 상사와의 문제, 가족 내 문제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대부분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Cooper(1983)와 Martens(1990), Lutans(1985)등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의 연구결과에서 직장내의 문제가 주 요인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4-1> 주요 스트레스원

주요 스트레스원	빈도수 (백분율)
경제적인 문제	195(35%)
직장 내 상사와의 문제	102(18.4)
가족 내 문제	97(17.5)
과업 중요도(업무에 관한 문제)	47(8.5%)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	35(5.3%)
부하 직원과의 관계	31(5.6%)
승진에 관한 문제	18(1.4%)
건강문제	14(2.5%)
기타	16(2.9%)
합	555(100%)

2) 성격특성별 스트레스 행동의 차이

성격별 스트레스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성격특성 점수의 상위 25%, 하위 25%를 경계로 하여 사회성-비사회성 집단, 안정성-불안정성 집단, A유형-B유형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간에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2> 사회성 집단과 비사회성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비교

	사회성 집단 n= 150 M ± ( SD)	비사회성 집단 n=135 M ± ( SD)	t	p
C1	8.80 (4.41)	8.94(1.96)	-.34	.828
C2	7.40 (3.68)	7.59(1.70)	-.60	.550
C3	10.56(4.58)	10.63(1.20)	-.15	.885
C4	7.70(4.76)	6.90(1.95)	1.52	.23
C5	6.34(4.31)	5.85(1.28)	1.03	.306
C6	11.01(5.65)	10.98(2.80)	.90	.85
C7	9.52(2.44)	9.08(2.23)	1.10	.27

Note) 대처양식: 문제지향적 대처양식: C1, C7  
 정서지향적 대처양식: C2, C3, C4, C5, C6

사회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는 <표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성 집단은 비사회성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추구(C4), 책임감수(C5), 고통스런 문제해결(C7) 대처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간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비사회성 집단은 사회성 집단에 비해 문제직면(C1), 분리적(C2), 자기조절적(C3), 회피적(C6) 대처행동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안정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표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성 집단은 불안정성 집단에 비해 분리적(부정적) 대처행동(C2)을 통계적으로 유의 있게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고통스런 문제 해결의 대처행동(C7)을 제외한 모든 대처행동에서 불안정성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거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4-3> 안정성 집단과 불안정성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비교

	안정성 집단	불안정성 집단	t	p
C1	8.02 (1.95)	8.93 (4.71)	-1.63	(.104)
C2	7.14 (1.66)	7.83 (1.57)	-2.17	(.031)*
C3	9.84 (2.31)	10.84 (4.76)	-1.74	(0.84)
C4	7.12 (2.11)	7.58 (5.10)	-.78	(.435)
C5	5.71 (1.28)	6.19 (4.61)	-.93	(.354)
C6	10.89 (2.86)	11.19 (2.60)	-.26	(.798)
C7	9.39 (2.32)	8.95 (2.07)	-1.14	(.256)

\* P<.05

A-B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는 A유형 집단은 B유형 집단에 비해 모든 대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A유형 집단은 문제직면적(C1), 분리적(C2), 자기조절적(C3), 사회지지추구(C4), 회피적(C6)등 모든 대처행동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결과적으로 정서지향적 대처양식과 문제지향적 대처양식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A유형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실패에 대해서는 회피적, 부정적 행동을 취한다는 Manuck & Garland(1979)와 Pittner & Nonton(1980)의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4-4> A유형 집단과 B유형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비교

	A유형집단 M ± (SD)	B유형집단 M ± (SD)	t	p
C1	8.80(1.81)	6.76(1.80)	4.22	(.000)***
C2	7.95(1.77)	6.91(1.47)	3.21	(.001)***
C3	10.35(2.53)	9.55(2.07)	1.96	(.050)*
C4	8.34(5.03)	6.34(1.65)	3.50	(.001)***
C5	6.08(4.56)	5.19(1.14)	1.74	(.084)
C6	10.86(3.28)	10.63(2.84)	2.40	(.010)**
C7	9.34(2.70)	8.74(2.21)	1.39	(.164)

\* P<.05    \*\* P<.01    \*\*\* P<.001

### 3) 성격특성별 스트레스 대처효과의 차이

성격특성이 스트레스 대처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제상황에서 개인이 취한 대처행동 이후 스트레스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E1), 자아존중감이 얼마나 유지되었는지(E2),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E3),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성과 스트레스 대처효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성집단은 비사회성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감소(E1)와 문제해결효과(E3)를 가진다. 반면 자아존중감 유지효과 (E2)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두 집단의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4-5> 사회성집단과 비사회성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효과의 비교

	사회성 집단 M ± (SD)	비사회성 집단 M ± (SD)	t	p
E1	3.46 (2.06)	3.14 (2.12)	.88	.382
E2	7.22 (2.22)	7.26 (2.38)	-.12	.903
E3	4.88 (2.10)	4.56 (2.02)	.88	.377

안정성집단과 불안정성집단의 스트레스 대처효과 비교는 안정성집단에서도 사회성집단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안정성 집단은 불안정성집단보다 스트레스 감소(E1)와 문제해결효과 (E3)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4-6> 안정성 집단과 불안정성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효과 비교

	안정성 집단 M ± (SD)	불안정성 집단 M ± (SD)	t	p
E1	4.92 (2.12)	4.10 (2.08)	.72	.470
E2	7.14 (2.20)	7.28 (2.16)	-.32	.747
E3	4.76 (1.98)	3.54 (2.28)	.60	.549

A-B 유형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효과와의 관계는 A유형 집단은 B유형 집단보다 모든 대처효과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4-7> A유형 집단과 B유형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효과 비교

	A 유형집단 M ± (SD)	B 유형집단 M ± (SD)	t	p
E1	4.22 (2.20)	4.74 (2.02)	-1.30	.196
E2	7.08 (2.56)	7.24 (2.06)	-.40	.691
E3	4.62 (2.08)	4.66 (1.98)	-.14	.890

이러한 결과는 성격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25% 집단과 낮은 점수의 하위 25% 집단간의 점수차는 성격특성별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간집단을 포함한 전체점수와 대처효과와의 관계는 유의 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상자들의 안

정성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군집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안정성 자체의 양 극단점수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안정성과 대처효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V.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경호업무 수행자들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효과와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직무의 이해와 적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무의 적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성, 안정성, A유형특성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대처효과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에서 불안정성, 비사회성 집단은 안정성, 사회성집단에 비해 정서지향적 대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문제지향적 대처양식에서는 의의 있는 차이가 없었다. A유형 특성집단은 B유형 특성집단보다 문제지향적 대처양식과 정서지향적 대처양식을 모두 많이 사용하였다. 불안정성, 비사회성, A유형 특성의 공통된 특징은 정서지향적 대처양식 중 회피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효과, 즉 적응과의 상관분석에서 안정성이 스트레스 대처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격특성, 대처양식, 대처효과와의 상관분석에서, A유형 특성은 사회성과 상관성이 높은 반면 안정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지향적 대처양식은 정서지향적 대처양식과도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대처효과와의 관계를 규명한 이러한 결론은 성격특성 중 안정성이 경호관련 직무의 적응에 가장 효과적인 성격인 것으로 사료되며, A유형의 성격특성은 안정성이 결여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성격인 것으로 나타나 조직에 잘 적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성과를 위해서는 안정성을 배양하는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교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적응 성격이라 볼 수 있는 비사회성, 불안정성, A성격유형 특성의 소유자들이 공통적으로 도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 및 직무에 대한 적응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을 지양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대상과 지역이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가 국내에서 표준화된 것이 아닌 관계로 외국의 선행연구와 직접 비교하여 해석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성격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다면적인 성격특성과의 연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권상철(1991).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석(1973). 일반 성격검사, 코리안 테스트 센터.
- 김정희(1987).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대(1986).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 김정희(1986).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 Vol. 11.
- 대한신경정신 의학회(1982). 「신경정신의학」, 제21권 1호, 27.
- 한국스포츠심리학회편(1994). 「스포츠심리학」.

### ▣ 외국문헌

- Allport(1994). *Sport Psychology*. AZ: Gorsuch Scarisbrick, Publishers.
- Averill, J.R. & Lazarus, R.S.(1972). Anticipatory Stress & Coping Reactions under Various Conditions of Uncertainty.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24.
- Bourne, D.J. & Rose, M.(1986). Stress and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moderating role of physical exercis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rch*, 35, 197-208.
- Breton, R.(1972). Social and Academic Factors in the career Decisions of Canadian Youth, Department of Manpower and Immigration, Information Canada, Ottawa.
- Caplan, R.D., S.Cobb & J.R.P.(1975). French, Jr., Relationship of Cessation Smoking with Job Stress, Personalit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60, NO.2.
- Carver, C.S., Coleman, A.E., and Glass, D.C.(1976). The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and the Suppression of Fatigue on a Treadmill test.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33.

- Cattell, R. B.(1950). *An Introduction to Personality Study*, New York : Hutchinsons Univ., Lib., P.21.
- Cattell, R. B.(1994). *Sport Psychology*. I.A.: Wm. C. Brown Communications, Inc.
- Cooper, C.L.(1983). *Stress Research*, John Wiley & Sons Ltd.
- Coyne, J.C., Aldwin, C. & Lazarus, R.S.(1981). Depression &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 of Abnormal Psychology*, Vol.90, NO.5.
- Dunbar, H.F.(1959). *Psychiatry in the Medical Specialists*. New York. McGraw-Hill.
- Eaton(1996). *Organizational Behavior*, 4th ed., McGraw-Hill. 130.
- Elkin, F., & Handel, G.(1978). *The child & Societs: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Random House*, New York.
- Eysenck, H.J.(1983). Stress, Disease, and Personality: The Inoculation Effect, in *Stress Research*. Edited by Cary L. Cooper, John Wiley & Sons, Ltd.
- Folkman, S., Lazarus, R.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 of Health & Social Behavior*, Vol.21.
- Folkman, S., & Lazarus, R.S.(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48, No.1.
- Folkman, S., Lazarus, R.S., Schetter, C.D., DeLongis, A. & Gruen, J.(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 Encouncter Outcomes.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50, No5.
- Frederick, C.M., & Ryan, R.M.(1993). Differences in Motivation for Sport and Exercise and Their Relations with Participa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port Behavior*, 16(3), 124-146.
- Friedman, M. & R. Rosenman.(1990). *Type A Behavior and Your Heart*, New York: Alfred A. Knapt. 32-38.
- Glynn, T.J.(1981).From family to peer. A Review of Transitions of influence among drug-using youth. *J. Youth Adoles*, 10.
- Gore,D.(1984).Competitive anxiety in junior elite wrestler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5, 58-71.
- Hall & Lindzey(1990). *Competitive anxiety in spor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Hamburg, M. D., Adams, J. A.(1967). A Perspective on Coping Behavior. Arch Gen. Psychiatry. Vol. 17.
- Hilgard & Atkinson(1993). Applied Sport Psychology. A: Mayfield Publishing Inc.
- Hobart, C.(1981). Sources of egalitarianism in young unmarried Canadians, Can. J. Sociol. 6.
- Holahan, C.J. & Moos, R.M.(1986).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Resources in Stress Resistance: A longitudinal Analysis.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51, NO.2.
- Hovanitz, T.S.(1992).Advanced of sport psychology.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Ishwaran, K.(1979).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Canada, Mcgraw-Hill Ryerson, Toronto, Ontario.
- Ivancevich, J.M. & M.T.(1980). Matteson, 「Stress and Work」, Scot Foreman & co.
- Jones, R.H.(1990).Sport Psychology: Concepts and Applications-Second Edition, Brown Publishers, 30-42.
- Jounard, Sidney(1975). Growing Growing Experience and the Experience of Growth, Allyn and Bacon, Inc.
- Lazarus, R.S., & Folkman, 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 of Health & Social Behavior, Nol. 21.
- Lazarus, R.S.(1994). Patterns of Adjuitment, McGraw-Hill Kogakusha, Ltd.
- Linn, M.J., & Simen, M.(1996).Psychology of the elite athlete: Anexploratory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 135-141.
- Lutans, L.(1990).A catastrophe model of performance in sport. In J.G. Jones & L. Hardy(Eds.), Stress and performance in sport. chichester, England: Wiley. 81-106.
- Manuck, S.B., & Garland, F.N.(1979).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task incentive and cardiovascular response. Psychophysiology, Vol.2.
- Margolis, B.K., W.H.(1974). Kroes, 「Occupational Stress and Strain」, In A. Mclean(ed.): Occupational Stress, Spingfield, Illinois: Thomas.
- Martens, R.(1969).Effect of an audiance on learning and performance of a complex motor ski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252-260.



- Mewett, J.H.(1987). Structural Phenomenology and performance. *Journal of Human Movement Studies*, 13.211.229.
- Moos, R.H., & Billings, A.G.(1984). Coping, Stress &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Bipolar Depression.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46, NO4.
- Parker, D.F. & T. A.(1983). Decotiis, Organizational Determinances of Job Str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323.
- Pearlin, R.(1989). Sport personology: A paradigmatic and methodological analysi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0, 471-478.
- Pittner, M.S. & Houston, B (1980). Response to stress, cognitive Coping strategies, and the type A behavior patter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 Richer(1994). *Organizational Stress and Preventive Management*, McGraw-Hill.128.
- Rosenman, R.H.(1983). Specificity in stress Models: Examples drawn from Type A Behavior. In *Stress Research*, John Wiley & Sons, Ltd.
- Sarason, T.K.(1986). Competitive stress in children. In M.R. Weiss & D. Gould (Eds.), *Sport for children and youth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118-129.
- Schuler, R.S.,(1980). Definition Coceptualization of Stress in Organiz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25.
- Tayer, R.E.(1967). Measurement of activation through self-report. *Psychological Reports*, 20, 663-678.

## ABSTRACT

### The Relationship of Safeguard Accomplishment Personality and Stress Coping Behavior

by Kim, Jong ta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relationships between safeguards' personality traits and stress coping behaviors. The findings then could provide data to adapt safeguards to their duties. For that, personality traits such as sociability, stability and stress coping behaviors and the effects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cognitive aspects which were known to influence stress coping behaviors were appraise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personality traits and stress coping behaviors, the unstable and unsocial group used the emotion-focused coping style more than the stable and social group. The two groups didn'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blem-focused coping style. The A-type group used both the problem-focused style and the emotion-focused style more than the B-type group.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unstable, the unsociable and the A-type groups was the heavy use of avoidance behaviors of the emotion-focused coping style.

Second,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sonal traits and the stress coping effects regarding adaptability, the stability influenced stress coping effects.

Third, regarding the personality traits, the coping styles and the coping effects, A-type group showed high correlation with the sociability but not with the stability. The problem-focused coping style showed high correlation with the emotion-focused style.

Fourth, the cognitive appraisal on the stress causes influenced the stress coping styles but not the stress coping effects.

Fifth, the cognitive appraisal on the same stress causes didn'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personality traits.